

96년 정보통신산업전망 심포지움 토론부문

“소프트시장은 활성화, 저가판매 이익은 저하”

다음은 96년 정보통신산업전망 심포지움의 토론부문으로, 지면관계상 요점만을 축약한다. < 편집자주 >

참 석 자

사회 : 변도운 한국경제신문사 주필, 김신배 한국이동통신 이사, 황태인 쌍용정보통신 상무, 이화연 한국물류정보통신 이사, 박성택 박사 산업연구원, 유병배 한국SW 산업협회 이사

사회 : 96년은 통신시장개방이 현실화 되고, PCS 등 통신서비스업자의 허가가 있게 된다. 토론 시간이 진지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

유병배 : 95년 수주개발부문은 공공기관 수요가 많았다. 96년에도 상승세가 기대된다. 따라서 인력스카우트 문제와 경쟁심화에 따른 덤핑이 우려된다.

과기처 노임단가는 현실성이 없다. 그대로 하다가 채산성이 안맞고, 개발투자 여력이 생길 수 없다. 따라서 1) 품질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산정 2) 기술자 노임단가 현실화 3) 인력양성 등을 제안하고 싶다. 소프트웨어협회에서는 고용윤리위원회를 설치, 각 회사 사장들이 강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인력이동은 어지러울 지경이다.

소프트유통분야는 95년 1,500억원 규모이었다. 95년들어 국산이 위축되었다. 신제품이 없으며, 몇몇 제품도 번들로 판매해 매장판매가 여지가 없다.

96년은 윈도95, 펜티엄 응용소프트 및 CD타이틀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반면 OA 소프트웨어는 어려울 것이다. 과당 경쟁 가격과괴로 이익이 보장안되고 있다. 개발사와 유통사의 분업화가 필요하고 덤핑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96년은 그룹웨어 활성화의 원년이 된다. 그러나 공급제품은 외국산이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설자리를 남겨주어야 한다. 정부도 이제 자체개발하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축시키게 된다.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저가입찰을 지양, 하한가를 규정하여 60% 이하 가격은 탈락시켜야 한다.

김신배 : 무선서비스는 새 성장사업이다. 새 통신 서비스사업자 대부분은 무선서비스이며,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는 열기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다. 결과 기준 유선계정책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초고속망도 기본적으로 무선을 고려해야 한다.

PCS는 정의자체가 흥미한 상태이다. 96년 사업자허가기준은 주파수 대역구분으로서 당초 PCS는 아니다. 때문에 세룰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 유무선업자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황태인 : 멀티서비스를 위한 기반구축방향과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무선멀티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사람들은 입체환경에서 편안함으로 느낀다. 95년도 세계시장은 10억리온달러 규모이었고, 96년에 19억리온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PC 50% 이상이 멀티를 지원하고 있으며, CD롬은 HW번들로 많이 팔리고 있다. 멀티서비스를 하려면 통신인프라가 필요하다.

멀티통신은 1단계, 기업내 멀티서비스 2단계, 비즈니스 사업자간 3단계, 대규모 이해관계자 간의 통신 등의 순서로 발전한다. 과제로는 1) 기술장벽 2) 물리적 시설준비 3) 낮은 멀티미디어 인지도 4) 지적재산권보호 등이 있다.

이화연 : 부가통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1) VAN업체 전문화 2) 목표설정 3) 표준화 4) 기간업자와 공공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등이 필요하다. 우리 VAN업자들은 모두 데이콤VAN을 모델링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를 가입자수에 두고 있어 매출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적자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에만 치중하고 있다.

요즘 또한 제도에 묶여 있다. 따라서 그룹VAN은 수치 맞추기가 어렵다. 표준화는 서식의 경우 일부업체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주도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벌써 CALS해석이 중구난방이다. 정부업체의 혼혈일체감이 필요하다.

박성택 : 21세기를 정보화가 규정 짓는다. 정보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기기인데, 이 기기들을 우리손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산업영향이 전무해진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 스스로 못하는 기술력 흡수위해 M&A도 한 방법이다. 기업간 협력도 고려대상이다. 작은 기업도 눈여겨 봐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권 할애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자기 기술력이 없으면 협력과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 : 정보산업은 범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다양하다. 무한히 뻗어나고 있다. 우리의 위치는 전화, TV, PC 보급기준으로 할 때 세계 19위로 보고되고 있다. WTO통신시장 협상에 의한 시장개방은 촉박하여 국내 경쟁전에 국제경쟁을 해야할 형편이다. 따라서 업계 스스로 대비해야할 일도 많다. 오랜시간 감사하다. ◆

원 고 모 집

1. 원고내용 : 정보통신 관련 제언, 정책동향, 기술동향, 법령해설 등 정보사회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글
2. 마 감 : 매달 15일
3.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0-1 세라빌딩 17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홍보출판팀
TEL : (02) 5131-170 FAX : (02) 5131-113
4. 기 타 : · 도착된 원고는 반환치 않으며,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원고 제출시 약력, 전화번호, 현주소 등을 작성해 주십시오.